

나주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6만2천여 가구 대상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시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내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15%)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바로 전송하고, 통계 상황실에서 조사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전자면접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11월 1일 0시 기준, 관내 빙집을 포함한 6만2천여 가구로, △거처종류 △빙집여부 △거주기능 가구 수 △농림어가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조사원 현장 확인, 직접방문(전체

표본을 제공) 위해 가구·주택 등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대상은 올해 11월 1일 0시 기준, 관내 빙집을 포함한 6만2천여 가구로, △거처종류 △빙집여부 △거주기능 가구 수 △농림어가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조사원 현장 확인, 직접방문(전체

시는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위해 조

사요원 48명을 채용,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조사지침과 태블릿 PC 매뉴얼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정확한 통계 자료 산출 기반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라며, "조사·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 타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조사원 방문 시 안심하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진드기·설치류매개감염병 영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절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을철(10월~ 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로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쪽수증이나 쪽수증과 가무시균에 감염된 텔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렙토스피라증은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 등에 노출돼 발생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등으로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전파돼 발생한다.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감염병은 예방수칙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하기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작업, 야외활동 후 고열, 구토, 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화순군은 최근 국화향연 축제장에서 화순군청년협의체, 의용소방대 화순군연합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국화축제 기간 '인구 늘리기 캠페인' 나서

청년협의체, 의용소방대 등 5개 단체 참여... 민관협력 통해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국화향연 축제장에서 화순군청년협의체, 의용소방대 화순군연합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랑! 인구 늘리기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우리 화순' 등 캠페인 문구가 적힌 어깨띠,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동참을 호소했

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의용소방대 화순군연합회, 한국부인회 화순군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화순군새마을회 등 저출산 인식 개선 협약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에 함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캠페인에서 외쳤던 표어가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겠다"고 밝혔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담양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25일까지, 2만 2천여 가구

담양군이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담양군 2만 2천여 가구(빙집 포함)를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 특성 항목을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위와 같은 기본사항을 파악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및 각종 조사의 표본들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블릿 PC를 통한 종이 없는 조사를 도입해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강종연 기자



함평군치매안심센터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기억생생 두뇌씽씽'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최근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치매안심센터 하반기 인지재활교실 마무리

함평군치매안심센터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기억생생 두뇌씽씽'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최근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 3회씩 총 3개월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력, 지남력 등 인지기능 활성화를 통한 치매 중증화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한글교실 △워크북 학습 △작업치료 △뇌활성화 운동 △베리코그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훈련 등 모든 교육과정이 악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약물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가 수업을 듣는 것처럼 모든 교육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너무 좋았다"면서, "기억력은 물론 항상 달고 살던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센터 관계자는 "인지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치매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 역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도 치매예방교실, 찾아가는 치매상담실 등 치매교육과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장성군 '쌀고정·밭농업직불금' 신속 지급

5일부터 1만1천165명, 74억2천여만원 지급

장성군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11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2019년도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총 74억2천3백만원을 이달 5일부터 지급 한다.

'직불금'은 농의 공익적 기능보전, 친환경 영농의 확산 유도를 통한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의 생산 장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실시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4월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양검사, 농작물질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등을 통해 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직불금 대상은 총 1만1천165명, 8천841㏊이다. 대상자의 평균 수령액은 각각 쌀소득보전 직불금 87만9천 원, 밭농업 직불금 34만5천 원, 조건불리 직불금 24만7천 원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가 대상이며, 1㏊당 지원 단가는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광종 기자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KEPCO

